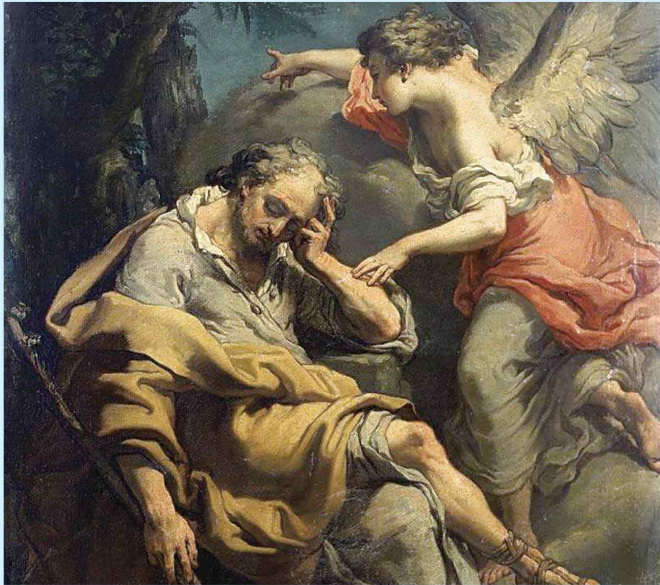


대림 제4주일(12월 21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마태 1,23)



요셉의 꿈

요셉은 바위에 턱을 괴고 다리를 꼬고 앉은 채 잠을 잔다. 그 앞에 천사가 나타나 손짓으로 그가 해야 할 일을 일러주고 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서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마태 1,20-21) 그런데 왜 요셉은 앉은 채 불편하게 잠을 잘까? 그것도 턱을 괴고 다리를 꼬고 앉은 채 말이다. 요셉은 자리를 깔고 편히 누워 잘 만큼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약혼한 마리아가 같이 살기도 전에 아기를 잉태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도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작정하며 괴로워하다가 잠들었기 때문이다. 고뇌에 찬 요셉의 꿈은 하느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잉태하게 했다.

가에타노 간돌피 | 1790년경, 캔버스에 유채, 95x76cm, 개인 소장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91번 “구세주 빨리 오사”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어 진리의 빛을 밝혀주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마태 복음 1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18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19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20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서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21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22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23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24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말씀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지난 시간 두려움 때문에 현실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마태 1,18-19 참조)

내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마태 1,20-24 참조)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예수 성탄 대축일을 한 주간 앞 둔 오늘 복음은 예수 성탄의 배경을 묘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의 눈'이 두려웠던 요셉이 주님의 천사를 통해 '신앙의 눈'으로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변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임마누엘, 곧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요셉의 상황과 비슷하게 여겨집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희망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때때로 요셉처럼 이해하기 힘들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가슴 아파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 아픔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크게 자리할 때, 하느님은 마치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신 백성과의 약속에 충실하신 하느님께서서는 이해할 수 없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당신의 섭리로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바라보며, 아픔과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 나갔으면 합니다. 임마누엘 하느님으로서 우리 곁에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대림 시기의 마지막 한 주간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써보기 [마태 1장 23절]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말씀나누기 이 시간은 원하는 소공동체에서만 진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함께하기

| 진행자 | : 우리 소공동체가 희년을 살아가며 실천할 사항들을 정해 봅시다.

[포용의 혁명 12월 14일, 감옥에 갇힌 이들의 희년 일정에 따라]

공동체와 함께

① 우리 교구 교정사목후원회에 대해서 알고, 공동체와 함께 후원하기

천주교 마산교구 교정사목후원회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에 근거하여, 교정 시설 수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들이 신앙 안에서 희망을 갖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희는 수용자들이 참된 회개를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동행하며, 이 복음적 활동을 통해 회원들 역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교회의 선교 사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후원회 조직은 마산교구 사회복지국의 지도 아래, 교정사목 전담 사제와 수도자, 그리고 회장단을 중심으로 한 임원 및 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구성원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교도소와 구치소 내 사목 활동을 헌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진주교도소, 창원교도소뿐만 아니라 통영구치소, 거창구치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정기 미사와 전례 행사가 있습니다. 또한 예비신자 교리, 세례성사, 견진성사를 통해 새로운 신앙인을 양성하고, 레지오 마리에 활동, 성경 퀴즈 대회, 성경 쓰기 등을 통해 기존 신자들의 신앙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용자들과의 일대일 결연 사업(영치금 지원, 서신 교류), 접견, 환우 지원 등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후원계좌: 하나은행 160-890023-35604 예금주: (재)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문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 16길27 가톨릭문화원 3층 교정사목위원회 055) 249-7043

내 삶 속에서

① 범죄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들을 위해 묵주기도 5단 바치기

② 범죄자들이 진심으로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일상 중에 화살기도하기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91번 “구세주 빨리 오사”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